

Ἡ Νῶ Ὠρὸς Ἰμποῖνρϵ 박사Æ 창세기Æ 세션 1Æ 소개

© 2024 Kenneth Mathew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세션 1, 소개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창세기를 연구하고,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지만 가장 좋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렬하고 강렬하게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 남자와 여자를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계획을 공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삶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할 것이라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론 창세기를 읽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비록 창세기가 구원자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자, 서론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문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둘째, 창세기의 주요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경과 토라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저자와 배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문 제목 제네시스(Genesis)이다. 이는 기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칠십인역으로 알려진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실제로 창세기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이며, 그것은 영어 번역에서 처음에 발견된 의미인 베레쉬트(Bereshit)입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제목 모두 창세기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 주요 메시지에 관해서는 시작과 축복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글쎄, 창세기의 장들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작이 창세기에 적합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작했다면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관해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는 창세기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시작이나 시작일 수도 있지만 결과나 결말을 향한 방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 메시지에서 그 자체, 즉 창세기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도전과 우리 자신이 겪는 많은 도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짐, 우리 자신의 죄성,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주요 메시지를 드러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과 관련된 단어들은 모두 축복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창세기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주제별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창세기 초기에서 세 가지 계획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공개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 28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 번역이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지정한 후,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베푸신 축복을 설명하는 일련의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수가 늘어나십시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이 축복의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류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지에는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느님께서 설계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은 출산과 재생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즉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청지기 직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창조 규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이 관계는 깨어졌고, 남자와 여자는 죽음을 당하고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으로 인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 가족을 축복하려는 그분의 소망,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절 3장에는 동산에서 여자 하와를 꺾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한 뱀과 고의로 알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뱀에 대한 심판의 문맥에서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곧 하나님이 너 곧 뱀과 여자 사이 곧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뱀 곧 구원자의 이가 도리어 여자의 이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인 네가 그 곧 구원자의 발꿈치를 칠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계획된 것을 볼 때 그것이 유산, 뱀의 유산 또는 후손, 그리고 여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자에게서 이 구원자, 이 구원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는 여자와 남자도 구출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인 뱀과 남자와 여자의 대적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은 구원자가 뱀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구원자가 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미지는 꽤 명확하지 않나요? 뱀이 발에 있어 남자나 여자의 발로 땅을 기어가다가 발꿈치로 머리를 짓밟아 머리를 부수어 물리치고 뱀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뱀은 구원자의 발꿈치를 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은 치명상이 아니라 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미리 맛보기, 이러한 예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올 구원자의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경을 통해 이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시는 분, 뱀을 물리치신 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분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신약에서 그는 마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럼 세 번째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해를 갖는 것은 씨인 여자의 씨, 즉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씨로부터 사람이 나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배달원.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통해 축복을 계속하시면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묘사되어 있는 다양한 민족, 즉 여러 민족의 완전한 번식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1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라는 가족과 그 나라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족장들의 이야기인 특별한 이야기를 교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축복에서 이미 반향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람에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토지 약속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언급된 축복은 통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땅,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인구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은 출산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유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자비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나라들, 즉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른 민족의 복이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민족의 반응에 달려 있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만민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독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올바른 관계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에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모든 다양한 종족 그룹, 특히 여러분과 나와 같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상적인 후손, 즉 장에서 예상되는 놀라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절 15절. 그러므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동산 사람들이 그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할 가능성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산과 그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받은 계시와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계시에 합당하게 관련될 남자와 여자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음은 창세기의 구조이다. 구조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성경 연구생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인식하는 방식은 두 가지 주요 부분, 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우주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에서 인류의 창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인류 가족의 다양한 후손과 종족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 가족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의 주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가족이며, 우리가 읽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는 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장부터 책의 마지막 부분인 50장까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주 가족과 가부장적 이야기라는 두 부분을 각각 하위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가족의 경우 식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설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동산 이야기, 동산의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홍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민족의 창조에 관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조, 정원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제 이와 병행하여 가부장적 모음집에서 발견된 네 가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들은 주요 가부장적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둘째, 이삭. 셋째, 야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이삭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족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브라함, 야곱, 요셉만큼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는 주로 야곱의 아버지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전환기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서 열두 지파, 곧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뜻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 가족의 구원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두 번째 권위를 갖고 파라오에게 영향을 주어 야곱에게 특별한 땅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주 역사의 네 가지 이야기, 즉 족장 이야기의 네 가지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자가 직접 제공한 형식적 구조이다.

그리고 과거에 창세기를 읽었거나 창세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 표현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세대와 족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표제에는 11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에는 “이들은 ~의 세대들이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2장과 4절을 보고 싶다면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의 세대입니다. 히브리어 세대라는 단어는 출산하다, 낳다, 낳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같은 많은 번역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족보가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세대가 단순히 족보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표제는 서술적인 이야기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런 번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뒤따르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라면 가족 이야기나 가족사 같은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제가 족보를 소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는 여기서 찾을 수 있듯이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일련의 연구에서 나는 내용과 표제 모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콘텐츠가 구조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병합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문 제목, 주요 메시지; 둘째, 구조;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오경의 문맥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다시피 오경은 다섯 권으로 된 모음집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가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은 독특한 컬렉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는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어는 토라(Torah)이며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지칭합니다. 토라(Torah)라는 단어는 실제로 음역이지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이나 음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는 법률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명사인데, 가르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야라(yara)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라의 기본 개념은 교육입니다.

나는 그것이 토라를 언급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번역은 일반적으로 토라를 법으로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법을 생각할 때 입법법이나 법원을 떠올리기 때문에 법보다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라(Torah)라는 단어가 사용 범위가 더 넓으면 법적 수집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일반적으로 가르침이나 교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Torah)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법의 개념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경에는 광범위한 법집이 있으므로, 오경에도 율법과 법집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더 넓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토라라는 단어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 컬렉션 또는 말뭉치, 즉 법의 개념을 함께 취한 다음 이를 교육, 즉 넓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육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한다면 토라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인 따옴표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의 계명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표현 방식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책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걷는 방법도 누군가의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멘토로 형성하고 참여시키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멘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인 축복자의 삶을 따를 때 가장 복된 삶, 가장 번영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많은 법칙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족보입니다.

내러티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내러티브를 통해 행하는 일을 주님의 길로 가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묘사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에 참여할 때 이것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으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맥락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곧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것이라고 다소 수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된 이유는 친척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는데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조카에게는 탈출구가 마련될 것입니다(18장 19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수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산, 족보, 미래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와 가족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를 지키십시오. 어떻게?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책인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율법 모음집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내용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지배하는 족보와 이야기라는 두 가지 문학적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도 시와 기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랍비 문헌이 성경의 처음 다섯 권, 즉 모세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의 랍비 문헌에서는 복수형인 모세서가 단수형보다 더 자주 사용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단수형인 모세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신명기 34장에 회상된 모세의 죽음과 장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구성의 통일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인 모세를 보면 오경, 즉 토라가 이 인물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출애굽기 2장에서 태어났고 그의 생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죽음과 장사가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의 수명은 120년이므로 초점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시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하여 출애굽기 말기와 레위기 전체, 레위기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모세의 오경,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류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축복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션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시리즈인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오경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창세기 전체의 첫 번째 청중이 광야에 있었던 세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체험한 세대로서 자신들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가 하는 일은 그들 자신, 즉 첫 번째 세대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나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의 건축을 포함하는 십계명, 성막에서의 예배를 포함하는 계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걷고 방향하다가 결국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장자리로.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가족의 신이나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제안되고 암시되는 한 가지 방법은 창조 시 하나님이 10번에 걸쳐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신 그들의 하나님이 단지 편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며 고대 세계의 다른 모든 신들과 같은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그는 창조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창조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그룹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설정의 저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배경의 저자에 관해서, 우리는 책 자체의 표현,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기간이 무엇인지와 같은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바벨탑과 같은 원시 이야기는 확신을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에는 성경 자체 내에서 오는 내적 증거와 언어와 측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외적 증거로 인해 고대 근동 문화를 통해 우리는 족장 시대의 틀을 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기원전 2200년에서 기원전 1550년 사이일 것이다. 기원전 2200년부터 기원전 1550년까지. 이제,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행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원전 1400년대였을 것이고 우리는 대략 기원전 145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많은 작은 왕들, 작은 도시 국가, 그리고 수많은 작은 왕들이 이 작은 왕국의 땅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중에는 가나안 지역을 지배했던 이집트, 헷, 바벨론의 대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기 시대의 외부 증거는 개인의 이름과 지명이 그 시대의 성서적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고대 세계의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가장인 족장에게 그 족장의 다양한 소유물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그 족장은 자기 집안의 종을 수령인으로 양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 보셨다면, 그의 종 엘리에셀은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 또는 후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이 계획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는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원전 2200년부터 1550년까지의 이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고고학적 언어는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중기 청동기 시대까지라는 점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스설정이 뭔가요? 출처 설정은 오경에서 창세기를 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출처 설정에 관해서 창세기와 오경 전체가 익명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글쎄, 전통적으로 당신은 아마도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창세기를 포함하여 오경을 모세의 책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권의 성경책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지배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는 신명기까지의 출애굽기 기록에서 목격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아말렉을 패한 사건과 같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책에 기록된 기록을 집필하고 수집했다고 거듭 전해진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언약책.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민수기 31장 2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19절과 22절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 자체는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31장 9절, 24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의 핵심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암시적입니다. 단지 암시적일 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 시대 이후에 업데이트, 편집 추가 및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경에서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물론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지명이나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데이트되는 추가 사항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창세기 36장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왕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왕들입니다.

거기에는 이 에돔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보다 먼저 통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36장에서는 이 초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아마도 다윗 시대에 왕정이 있었던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왕들은 수세기가 지나서야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된 내용은 일부 후기 독자, 일부 후기 독자가 업데이트하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에돔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 사이의 시간적 관계.

이제 모세가 실제로 오경의 주요 수집가였다면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창세기의 목격자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의 시대 이전입니다. 글썄, 내 생각에는 창세기에는 모세가 이용할 수 있었던 기록 모음집이 있었다는 암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 책입니다.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세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즉, 읽고 쓰는 능력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이야기, 왕실 기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글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아브라함 가족의 조상 이야기에 관해서는 이것이 기록된 기록이 되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술 기억 외에도 모세가 접근할 수 있었던 권위 있는 기록과 가족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쓰셨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격할 수 없고 목격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계시의 형태를 통해 모세에게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관해서는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든지 이 책을 받았고 그것을 프롤로그, 서문, 방식으로 제공할 계정에 넣었을 것입니다. 족장 가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열국의 식탁에 들어맞는지,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족을 위해 염두에 두고 계신 온 세상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계정 생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세션 1, 소개입니다.